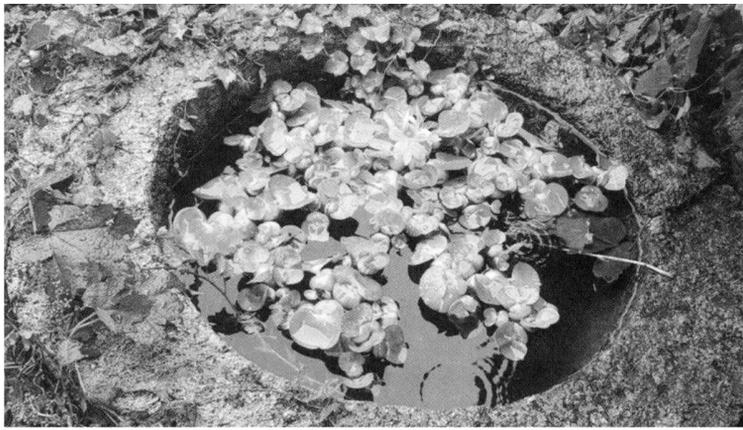


“유품이 품은 시·공간과 사람 이야기”

박정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유품 정리보고서 ‘굿바이...’ 펴내 부모님 유품, 미술사학적 분석 상상레 풍속·세태 변화 등 담아



아버지가 도구통에 키운 부레옥잠과 송사리.

“말 그대로 유품은 죽음을 전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전제는 삶이니 유품은 실존의 다른 모습이라 생각해요. 박물관에 소장된 유품에서 알 수 있듯이 유품의 집적체가 곧 역사이지요.” 박정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유품의 의미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나를 포함해 누구도 유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품에 대한 예의는 결국 나 자신과 주어진 생애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유품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박 교수도 그랬다. 그러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유품이 눈에 들어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민속의 섬 진도 출신이다.

“역사 속 다수의 민(民)에 속하고 공적범주에서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나는 그러한 평범함에 실린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여겨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유품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료(史料)로 다가왔죠.”

최근 박 교수가 ‘미술사학자의 엄마 유품 정리보고서-굿바이, 영자 씨’(성균관대 출판부)를 펴내게 된 이유다.

“유품이 품고 있는 시간과 공간,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말에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짐작됐다. 예상했던 대로 책에서 아우른 ‘영자 씨’는 저자의 어머니 세대의 많은 여성들을 기호화하는 이름이었다.

박 박사가 책이 나오기 일주일 전쯤 “유품을 다룬 책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연락을 해왔을 때, 기자로서 ‘유품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한 개인의 유품을 주제로 깊이 있게 다룬 인문서나 역사서를 거의 보지 못했던 터였다.

책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박 교수가 걸어온 학문적 궤적이 눈길을 끌었다. 역동적이었는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통섭적’이었다. 그는 전남대 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국어국문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술사학으로 전공을 바



박정에 교수



귀 홍익대에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포닥 연구원을 비롯해 영국 런던대 소아즈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미술사를 강의했다.

걸어온 길은 앞으로 나아가길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다. 앞으로도 내공이 담긴 미술사와 연계된 저서를 펴낼 것은 같은 예감을 준다.

이번 책을 펴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유품 정리 과정,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가 많이 아프면서 직면한 삶과 죽음의 화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며 “어느 날 문득 미술사학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모두 누군가의 유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게 익숙한 연구 방법을 유품 분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박교수는 말했다.

물론 부모님의 유품을 다루다 보니 자칫 ‘신피’로 빠질 우려도 있었다. “탈고하기까지 6개월 내내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흑역사 자신의 뒷투리가 되지 않을까 절제했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소개한 유품들이 “독자 개인의 경험치 속에서 의미를 찾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는 말에서 지향점이 엿보인다.

책을 읽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지인과 ‘내버리는 방식’으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한 걸 반성했다’는 이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의도가 전달된 것 같아 안도했다’고 한다.

책을 쓰기 위해 친인척들의 인터뷰를 했으며 진도 상상레 풍속을 이해하기 위해 민속학계에서 발표한 논문을 10여 편 봤다. 또한 각종 사전과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영상의 도움도 받았다. 어린 시절 진도에서 봤던 전통의례와 민속놀이, 꽃상여와 만장들, 상엿소리, 찻감국 등도 행간에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지는 물음에 “어느 한 가지를 고르긴 어렵다. 하나하나 엄마의 체취가 밴 것들이고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며 “굳이 하나 들자면 휴대폰인데, 평소 엄마가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라 애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망자들의 유품을 차근차근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상상레 풍속과 유품 정리를 둘러싼 세태 변화를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참사와 전쟁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일상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이들의 고통에 둔감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누구든 지위와 명성, 재산의 유무를 떠나 생과 사의 오롯이 존중받아야 마땅하지요. 망자의 생 앞에 경의를 표하고 유품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비로소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남동 인쇄골목서 시민·상인 ‘동행 축제’

내일부터 푸드트럭 음식 무료 나눔·성과물 전시·포토존 등

인쇄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린다. 광주지디자인진흥원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펼치는 ‘서남동 인쇄골목 축제’가 그것.

19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이번 ‘인쇄골목 축제’는 푸드트럭 음식 무료 나눔행사를 비롯해 전시,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러진다. 이번 축

제에서는 인쇄기업 임직원들의모금 행사도 진행되며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된다.

박영택 센터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인쇄 소상공인과 함께 교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진행된다”며 “시민, 소공인들과 함께하는 동행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플랫폼 ‘활자활짝’에서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 국악’ 컨셉샷.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올 겨울엔 ‘키즈 국악 캐럴’ 어때?

전남도립국악단 ‘그린 국악’ 21·28일...단막 창극·사물놀이 등

‘키즈 국악 캐럴’을 비롯해 ‘국악 실내악’, ‘단막 창극’과 ‘사물놀이 판’까지 다채로운 가무악 공연이 펼쳐진다.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일가무악회 시즌4 ‘그린국악’ 12월 공연을 오는 21일, 28일 오후 4시에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연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공존하는 ‘전통 판’을 기치로 내거는 무대이며 이번이 마지막 시즌이다.

먼저 성탄절을 앞둔 21일에는 키즈 국악 캐럴 레퍼토리가 올려 퍼진다. ‘무릎 사슴’ 외 여러 곡들을 우리 전통악기로 표현할 예정이다. 이어 ‘앞은반 사물놀이’와 민요 ‘동백타령’이 레퍼토리에 있다. 김유미가 안무 작업한 설정구춤 ‘산홍’, 이시영이 구성한 복 연주 ‘악의 연대기’도 관객들을 만난다.

28일 공연은 유창하고 섬세한 선율이 깃든 국악

실내악 ‘룡강기나리’로 시작한다. 민요 가수들이 독창곡으로 자주 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무 작품이 창작되기도 했다. 뒤이어 서한우가 구성한 ‘버꾸춤’, 민요 ‘아리랑 연곡’ 등이 무대에 오른다.

끝으로 단막창극 ‘화초장’ 대목이 계속되는데 ‘홍보가’ 중 놀보가 화초장을 지고 가며 이름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며 부르는 사설이다. 형제 우애를 내세워 동생의 재산을 탐하는 놀보의 욕심이 드러난다. 대미는 ‘사물놀이 판’으로 장식한다.

조용한 총감독은 “관객들이 일상을 벗어나 우리 전통음악의 흥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곡에 고민을 했다”며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국악 캐럴 등이 흥을 돋울 것”이라고 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

여성 가사노동자로 산다는 것

광주여성가족재단, 5인의 구술·채록집 ‘우리는 마이아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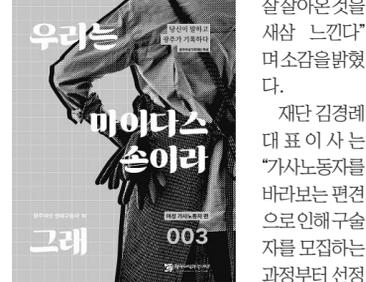
‘가사노동’은 가족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허드렛일로 치부됐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존재해 온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구술·채록한 책이 나왔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은 구술채록집 ‘우리는 마이아스 손이라 그래’ 발간 기념 집담회를 오는 20일(오후 2시) 재단 2층 소공연장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광주 출신 가사노동자 5명이 가사노동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재단은 집담회에 앞서 구술채록단(한영숙·조경미 등 5명)을 꾸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5인은 자영업은 물론 보훈의 판원, 공장노동자,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등 다양한 직종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사노동을 했다.

구술자들은 “부득이하게 이 일(가사노동)을 선택해 바쁘게만 산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고 나니



잘살아온 것을 새삼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가사노동자를 바라보는 편견으로 인해 구술자를 모집하는 과정부터 선정 이후까지 어려움이 많이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경험을 들려준 다섯 여성들과 채록자로 인해 ‘광주여성 생애구술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했다.

QR코드 사전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